

## 크리스천 작가의 작품 이미지와 사역적 삶의 지평에 관한 연구\* \*\*

오 의 석\*\*\*

### 논문초록

본 연구는 크리스천 작가의 작품 이미지와 사역적 삶의 지평에 관한 사례 연구이다. 논문에서 살펴본 여섯 작가의 작품과 삶을 통해서 다양한 창작과 사역의 지평을 확인할 수 있다. 논문에서 다룬 이 작가들은 기독교 미술 작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과 창작의 작업을 보여주면서도 그들이 형상과 이미지의 세계, 곧 창작과 전시 활동에 머물지 않고 직접적인 사역의 삶을 선택한 작가들이다. 조각가에서 목회자로 삶의 전환을 이룬 작가가 있는가 하면 화가에서 크리스천 상담가로, 그리고 미술선교사로 사역을 담당하는 작가가 있고 또 공동체를 지향하며 작품과 사역을 감당하는 조각가의 모습을 발견한다. 한 청년 조각가는 결국 해외선교지에서 어린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는 선교사로 헌신적 삶을 살아가기에 이른다.

이 작가들의 삶에서 공통적인 특성은 작가들을 찾아온 말씀에 의해 그들의 삶에 극적인 변화가 있었으며, 그 후의 작업에서 그 말씀의 세계를 형상으로 담아 옮기려는 노력과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상과 이미지의 세계 안에 머물러 있기에는 너무 거대한 말씀의 세계에 대해 자각하고, 창작과 전시의 행위가 가지는 한계에 대해 인식하면서 작가들은 보다 직접적인 사역적 삶에 주력하거나 아주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이 헌신된 작가들의 사역적 삶으로의 전환은 미술계와 기독교 미술계에 커다란 손실로 여겨지는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전체를 생각하면 결코 손실이 아니며 오히려 전문성을 가진 사역자의 출현으로서 강화의 의미를 갖는다.

이 작가들의 사례 연구를 통해서 미술사역의 가능성과 필요성, 그 한계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수 있었는데, 미술선교, 미술치유, 미술공동체 사역에 대한 논의와 강조가 한국 기독교 미술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논문에서 다루는 작가들은 그 한계에 대한 개인적인 자각을 통해서 삶의 전환을 모색한 사례를 보여 주며 그 사역의 지평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 본 논문은 2012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장로회신학대학교, 2012. 5. 28) 발표 논문 ‘크리스천 작가의 작품 이미지와 사역적 삶의 지평’을 수정 보완한 것임.

\*\* 본 연구는 2012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비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대구가톨릭대학교 조형예술학부 교수

2012년 11월 16일 접수, 11월 26일 최종수정, 12월 16일 게재확정

연구가 기독교미술인으로서의 소명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 사이에서 크리스천 작가들이 가지는 다양한 활동과 사역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작품 창작과 삶의 일치를 위해 힘쓰는 많은 크리스천 작가들의 연구와 노력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말씀, 크리스천, 작가, 작품 이미지, 사역적 삶**

## I. 서론

한 작가의 작품이 그 작품을 만든 작가의 삶과 세계관의 반영이라고 할 때, 작가의 작품과 삶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일이다. 크리스천 작가의 경우 그가 표현한 작품 이미지가 작가 자신의 고백적인 믿음과 선포적인 삶을 담아내고 표현하게 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며, 작가가 삶과 작업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치시키려고 노력할 경우 그러한 표현은 더욱 자연스러운 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술인으로서의 창작에 대한 흥미와 열정이 교회와 공동체로부터의 사역적 요청과 화해를 이루고 일치된 삶으로 나타날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창작에 대한 흥미와 열정은 때로는 교회와 공동체로부터의 사역적 요청과 갈등을 일으키며 상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창작의 길을 포기하거나, 창작활동을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을 하면서 사역적인 삶에 헌신하는 경우를 보여주기도 한다.

본 논문은 크리스천 작가의 작품 이미지와 작가들의 사역적 삶에 관한 연구로서 작품을 창작하는 작가의 소명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그에 대한 해답을 몇몇 작가의 삶과 작품 사례에서 찾아보며 다루고 있다. 연구를 통해서 크리스천 작가들의 삶과 작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사역적 삶의 실천을 위해서 작품 창작을 포기하고 삶의 전환을 이룬 작가들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미술사역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성찰해 보고자 한다. 믿음의 고백과 삶으로서의 창작을 일치시키려는 작가들의 치열한 추구의 모습을 소개함과 동시에 그러한 삶과 작업의 지니는 가치와 의미를 조명해 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 안에서 미술과 조형창작의 적절한 위치를 파악하고 그 위상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크리스천 작가들이 펼쳐 나갈 수 있는 사역적 삶의 지평 가운데,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영역은 목회사역을 비롯해, 미술선교, 미술치유, 미술공동체가 될 것이다. 그 중에서 미술선교 사역은 1990년대 들어 한국미술인선교회가 조직되면서 공동체적 운동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시각예술이 가지는 보편적 소통성과 이미지의 힘과 영향력에 대해 강조하는 시대 문화적 배경, 전문인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미술선교는 힘을 얻게 되었다. 해외 선교지의 미술사역 요청에 맞춰서 해외전시와 벽화를 중심으로 한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수행 등이 크리스천 미술단체를 통해 꾸준히 계속되고 있으며 미술선교사의 신분을 가지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사역에 적극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미술치유는 언어적 표현의 장애와 어려움이 있는 경우 마음의 상태를 알아내고 그 상태의 표현과 조정을 통해 치유의 효과를 경험하는 과정으로 정신치료와 상담에서 매우 활성화되고 있는 영역이다. 미술대학의 교과목으로 국내에 소개되고 다루어지기 시작하였지만 활발한 세미나와 전공과정의 개설, 자격증제도의 운영과 미술심리치료사의 고용 확대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충분한 창작의 경험과 표현의 역량을 가진 작가들이 참여가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에 대해 깊은 연민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성숙한 크리스천 작가들이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관심영역이라고 생각된다.

한국 크리스천 미술 단체들은 그동안 교회와 미술계 사이에서 크리스천 작가들 사이의 친목과 교류, 창작과 발표를 지원하고 협력하는 위치에서 활동해 왔으며, 최근 들어서 미술선교 사역을 활성화 시키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레시던시 프로그램의 운용, 공동창작과 나눔, 기부와 사회적 참여 등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공동체 사역은 기존의 미술단체와 차별성을 가지는 소그룹 활동으로 공동의 창작을 통한 공공프로젝트의 수행과 교육 프로그램 운용 등이 있는 경우를 다루고자 한다.

그동안 기독교 미술에 관한 많은 연구와 저술들이 성경과 문화신학, 기독교미술 이론의 기초 위에서, 기독교미술의 방향성과 역할, 원리와 과제 등을 주로 논의하고 그 가치를 환기시키는 데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여 왔으며 작가와 작품의 구체적인 사례에 접근하고 이해하며 그러한 자료들을 기초로 한 연구의 성과들을 찾기 어렵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그 동안 진전되어진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의

연구의 방향에 변화를 주면서 그 성과를 더욱 풍성히 하는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역적 삶으로의 전환을 이루는 작가들의 작품 이미지의 특성을 다루고 그들의 삶과의 연관성을 찾아보는 것은 작품과 삶이 이원론적으로 유리되지 않고 하나의 통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작품의 이미지가 작가들의 현재적 상황만이 아니라 미래의 삶과 계획까지를 예견케 하고 전망하게 하는 것임을 확인시킨다. 그리고 작가들의 이러한 선택과 전환이 가지는 의미를 찾아보고자 하는데 이는 미술계와 문화계에 커다란 손실처럼 여겨질 수 있는 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교회와 공동체 속에서는 사역의 지평을 넓히고 보장하는 좋은 열매로 받아들여 질 수도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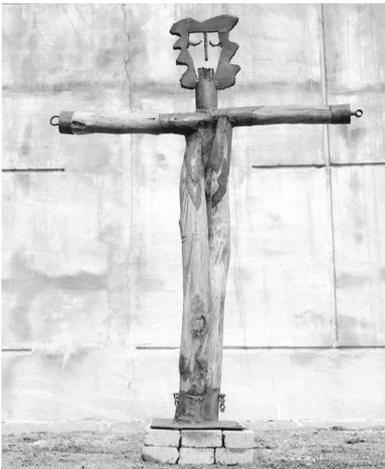
## II. 작가의 작품 세계와 사역적 삶의 사례

### 1. 사랑과 복원의 종합예술

<한사랑>의 연작들을 보여주었던 조각가 조동제는 수 년전 어느 날 미술계를 훌쩍 떠나서 ‘새로운 목양의 삶을 시작했다. 작가의 삶과 신앙, 작품을 지켜 보아온 연구자에게 이 같은 선택과 변화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나무를 깎고 돌을 쪼이고 쇠를 녹이고 동판에 못을 쳐서 인물을 조형하는 삶으로 만족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상징과 은유의 조형 형식이 주는 즐거움과 깊이가 있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 순간적인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조각가는 자신의 작품이 다른 이들의 삶에 미치는 변화와 그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사실 앞에서 흔히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작가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였을 때, 생명이 없는 재료를 만지고 다루는 조각의 일이 때로는 공허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에게는 인간의 삶에 직접적으로 부딪치고 싶은 바람이 있으며 함께하는 사람들의 인격에 변화를 이루면서 영혼을 빚어가고 싶은 목마름이 있는 것이다. 타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빚어가는 목양의 삶은 최고의 예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인생들을 새롭게 조형해 가는 목양은 하나의 예술이자 하나님이 허락한 최고의 삶이라 할 수 있다.

1991년 조동제의 첫 개인전은 작가의 조형적 기초와 지향이 어디에서 출발하여 어

디로 향하는 것인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조각가에서 사랑과 복원의 종합예술가로 삶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작업에 대해서 매우 자유로운 조각가였는데, 그 자유는 위로부터 받아 누리는 은혜였으며 자신을 포기함으로 얻은 수확의 열매라고 밝히고 있다.



[그림1] 한사랑 9 - 이처럼 사랑하사  
53×27×77, 나무, 철판,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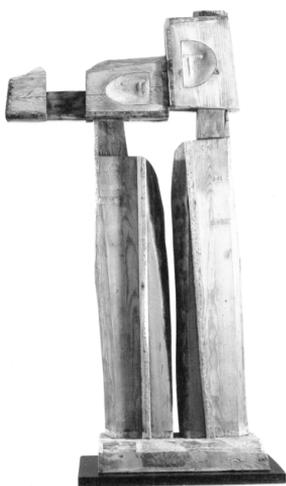


[그림2] 한사랑 10 - 이처럼 사랑하사  
190×30×190, 나무, 철판, 1991

‘내게 있어서 조각의 관심은 삶의 이상추구에 있지 않다. 문제 해결이나 새로운 것에 대한 갈증이나 제시에서 출발 되어지는 것은 더욱 아니다. 부모의 보살핌 안에 있는 자식과 같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시작되는 세계이다. 하늘로부터 오는 내 호흡의 자유와 해방과 부요함에 대한 감격과 환희가 늘 내 마음을 채우며 그 마음으로 나는 나의 형태를 만진다. 그러므로 나의 작업은 문제해결의 관심을 마감시킴으로 비로소 진행된다. 새것에 대한 갈망에서 돌아섬으로 진행되며 내가 주체자 되는 것을 포기함으로 얻는 열매이다 (조동제 개인 전 작가의 노트 중에서, 1991)

위와 같은 작가의 진술 속에서 이미 조동제의 작업은 그 출발에서부터 미학적 회심을 드러내고 있다. 미술평론가 최태만 교수는 그의 작품에 대해 ‘화해와 온유를 지향하는 조각’이라는 독특한 성격을 부여한다(조동제, 1991.p.3). 전통과 현대의 재료와 양식이 그의 작품 안에서 만나고 있는데, 한옥을 지탱했던 헐려진 재목들이 철판의 용접과 동판의 못질에 의해 인물의 형상으로 복원되고 있다. 도판의 작품 <한사랑2> 처

럼 상호신뢰와 의존을 보여주는 남녀의 인물군이 주종을 이루는 가운데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를 다룬 〈한사랑10-이처럼 사랑하사〉와 같은 작품이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며 나타난다. 우리는 그의 작품에서 한국성과 현대성, 그리고 기독교적 정신성의 융합을 확인하게 되며,<sup>1)</sup> 그래서 한국 현대 크리스천 미술의 좋은 모범과 전형으로 그의 작품에 접근할 수 있다.



[그림3] 한사랑 2  
70×25×140cm  
나무, 동판, 1991

이런 점에서 조동제의 작품을 조형적으로 분석해보면 크게 두 개의 정형화된 구조가 눈에 띈다. 이는 두 인물을 대비시킨 상호 대응 구조이며,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현한 가로 세로가 교차하는 구조이다. 두 개의 구조 모두 만남이라는 점에서 일치하며 만남의 방법에 있어서 대응과 교차라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가 인물을 다루는 방식은 철과 목재의 특성에 구상과 비구상의 경계로서 반추상적 인물로 다루고 있으며 정교한 마무리보다는 거칠고 투박하게 재료를 다루어 마감한다.

이러한 조형성을 바탕으로 한 조동제의 한 사랑 연작 중에 사랑의 메시지를 드러내지 않은 남녀의 인물군 작품들은 대중적 공감과 소통을 얻기에 매우 적합하며, 메시지를 드러내는 경우의 작품도 한국의 전통과 주거에 일상에 뿌리를 둔 목재의 사용을 통해 감상자들과의 소통에서 매우 친근하고 편안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조동제가 조각에 손을 놓고 미술계를 떠난 것은 매우 아쉬운 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조각 안에서 간혀 있을 수 없는 작가였으며 그는 이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들을 사랑으로 복원하는 종합예술가로 살아가기를 시작한다. 연극이나 영화, 드라마의 감독들처럼 허구의 세계를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중요한 실제의 삶을 만지고 다루는 예술가가 된 것이다. 한 생명의 출생에서부터 성장과 결혼, 가정과

1) 프란시스 웨퍼는 그의 저서 예술과 성경에서 현대 크리스천 작가의 작품은 그의 시대와 문화를 반영하면서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과 기독교 정신을 담아내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예술과 기독교 IVP).

일터, 그리고 인생의 노후와 임종의 마지막 순간까지를 지켜보며 섬기는 감독이 된 것이다. 그래서 연구자는 아직도 그를 예술가로 대하며 만나는 것이 가능하며, 그가 새롭게 열어가는 목양의 삶을 사랑과 복원의 작품으로 기대하며 지켜보는 것이다. 새목양교회의 개척 예배 후보에 실린 그의 첫 칼럼은 우리의 기대가 헛되지 않으리라는 든든한 믿음을 준다.

“언제부터인가 주님은 제게 이런 소원을 주셨습니다. 이 세계를 복음화 시켜야 하겠다는 큰 꿈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서의 소원함이 아니라, 내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예수님 닮은 목사’ 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는 다른 이의 삶을 다루기에 앞서서 자신의 삶을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깨닫고 있다. 작품 <한사랑>의 조각가가 새 목양자로서, 사랑과 복원의 예술가로서 들려주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을 작품으로 빚어 가는 것, 깨어진 형상을 새롭게 회복하는 것이 최고의 예술임을 생각한다.

## 2. 캔버스에 담은 마음의 심연

형상과 색채는 사람의 마음을 담아내게 된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그린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림은 마음의 치료에 이용되기도 한다. 최근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미술작품의 치료적 효과에 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카타르시스 이론<sup>2)</sup>에서부터 그 가

### 2) Catharsis - 카타르시스

그리스의 의학용어로 ‘정화’의 뜻,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詩學)》 제6장 비극의 정의(定義) 가운데 나오는 용어. <시학>에서 나오는 비극이론의 중요한 개념. 일반적으로 연민과 공포의 감정을 발산시키기 위해 보다 큰 고통을 불러 일으켜 자극을 하게 되면 맑고 시원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감정의 정화를 카타르시스라고 함. 종교적 의미로 사용되는 한편, 몸 안의 불순물을 배설한다는 의학적 술어로도 쓰인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진의에 대해서는 이 구절의 표현이 불명료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설(異說)이 분분한 채 오늘에 이르지만, 요컨대 비극이 그리는 주인공의 비참한 운명에 의해서 관중의 마음에 ‘두려움’과 ‘연민’의 감정이 격렬하게 유발되고, 그 과정에서 이들 인간적 정념이 어떠한 형태론가 순화된다고 하는 일종의 정신적 승화작용(昇華作用)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정신분석에서는 무의식 속에 잠겨 있는 마음의 상처나 콤플렉스를 말·행위·감정으로써 밖으로 발산시켜 노이로제를 치료하려는 정신요법의 일종으로, 정화법(淨化法)·제반응(除反應)이라고도 한다.

능성을 찾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수 년전 작고한 요셉 보이스는 세기 말의 많은 젊은 작가들에게 영웅시 되었던 현대작가로서 미술은 병들고 부패한 사회와 인류를 치유하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며 미술가는 초인적 능력을 지닌 치유 구원의 영매이고 무당과 같은 존재라고 말함으로써 미술과 미술가의 정체성을 과장하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마음을 그리는 화가 황지연을 처음 만난 것은 1995년 겨울, 기독교미술연구회의 수련회에서였는데, 강의를 위해서 그곳을 찾은 연구자에게 건넨 작가의 개인전 도록을 통해 그의 그림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 캔버스에 오일로 그린 그림들이었지만 오일로 그린 것이 맞는지를 묻고 싶을 만큼 그의 그림은 유화 같지 않은 독특함을 지니고 있었다. 마치 창밖의 겨울호수에 피어오른 물안개가 색깔을 흡수한 머금고 있는 듯한 화면에 연구자의 눈은 고정되었는데, 파스텔화를 연상케 하는 그의 그림에서는 보는 이의 마음을 품고 어루만지는 위로의 힘이 느껴졌던 것이다. 작가는 긴 설명을 대신하여 침묵하고 있었지만 이미 그의 작품들은 작가의 깊은 심연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1997년 가을, 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가 기독교세계관대학원의 설립의 재정후원을 위해 기획한 VIEW 미술전에 함께 참여하면서 황지연 작품의 실체를 접하게 되었는데, 도록에 기록된 작가의 노트를 통해서 그의 작품이 지닌 치유적 힘의 비밀을 조금은 감지할 수 있게 되었다(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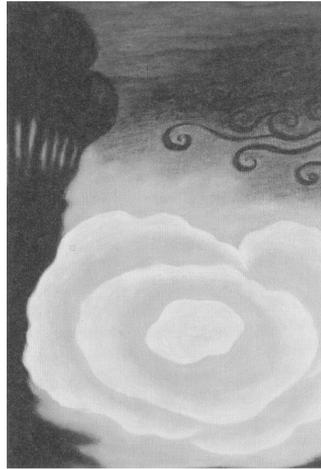
“남겨진 고요함 가운데 눈을 들어 나의 의식과 감정 그 너머의 초월적이며 절대적인 또 하나의 세계를 바라보자. 생소하리만치 새로운 내 마음의 모습이 떠오르고 그 세계와의 만남 안에서 늘 확실한 영감을 기대해도 좋다는 약속의 안도감이 짙어간다.”

작가가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기까지, 그리고 자유롭게 그 마음의 심연을 화폭에 담아 드러냄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공명과 치유적 힘을 행사하기까지 그의 삶과 화업의 여정은 그렇게 순탄한 것이 아니었다. 명문여대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황지연은 실존주의 예술철학을 공부하기 위해 유학의 길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곧 삶의 전기가 맞게 된다. 어느 유학생 집회에서 회심의 경험을 가지게 되었고 그 후 성경공부와 교회의 활동에 열심하는 생활의 변화가 일게 되었는데, 그 때, 갑자기 손발이 잘린 듯 그동안 추구했던 가치와 세계관의 단절로 인한 내면의 공허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고, 그의 방향은 화업의 갈등과 함께 계속되어간다. 그가 다닌 미술학교가 위치해 있던 캘리포니아의 중부 산타바바라의 해변에서 서양문명의 요지 유럽으로, 현대미술의 메카 뉴욕으로

그의 사색과 여행은 계속 이어졌지만 실망감만을 더욱 키운 채 고국을 찾게 된다. 결국 그는 7년이 넘는 유학생활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와서 자신의 내면을 조용히 들여다보며 표현하는 한 사람의 화가로 정착한다(나의 세계관 뒤집기, 복음과 상황 1998. 2월).



[그림4] 비움의 기쁨  
116.5×72.5 Oil on Canvas, 2005



[그림5] 밤이 전하는 지혜  
90.5×60.5 Oil on Canvas, 2005



[그림6] 그리는 이 / 그리움의 노래 130×166, Oil on Canvas, 2005

수차례의 개인전을 가졌고 기독교미술의 연구와 함께 1994년부터 황지연은 상담과 치유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시작한다. 어찌면 캔버스에 마음을 투영하고 비춰보는 일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전인적인 치유를 위해서는 인격과의 만남이 절대적

으로 필요하고 성령의 조명과 도움이 필요함을 느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공부의 과정을 밟던 중 그는 “네 마음의 중심에 있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의 작품 <내 마음의 왕>은 작가의 이 당시를 회상하게 하는 작품이 아닌가 한다.

“하나님은 12년 전에 내게 오셨지만 늘 주변인물로 계셨고 참 내 주가 되지 못한 채 지구 끝이라도 가서 삶의 답을 찾겠다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나를 지키며 늘 따라다녀 주신 거였다. 바로 그분이 나의 해답이었고 친구였고 참 남편이었으며 영원한 부모였는데...”

위와 같은 고백 이후, 황지연은 참된 자유를 느끼면서 그동안 의존했던 것들로부터 독립한다. 그리고 달려야 할 목표를 갖게 되며 화면 속에서 이루지 못한 치유를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 우리는 황지연의 삶과 그림의 여정 속에서 미술이 갖는 치유적 힘의 한계를 발견하며 인정하게 된다.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선 작가의 이력 앞에서 한 작가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일하신 분의 역사를 읽을 수 있으며, 장차 작가가 새롭게 내보일 마음의 심연에 대해 기대를 하게 된다. 어쩌면 작가가 그려낼 마음의 폭과 넓이와 깊이는 캔버스의 틀 안에 담겨지지 않을 만큼 큰 것일 수도 있다는 예감을 가질 수 있다.

여기서 황지연의 작업은 말씀의 주제 안에 간혀 있는 세계가 아니라 말씀의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면서 세상과 사람들을 품고자 하는 정신의 구현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믿음을 가지지 않은 감상자들도 쉽게 접근하고 소통이 용이한 세계를 보여주는 강점을 지닌다. 황지연의 작업은 크리스천 작가로서 기독교미술의 전형적인 틀을 벗어나서 그 지평을 넓히고 있으며 일반 대중과의 소통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 3. 말씀의 체현과 증언의 이미지

#### 1) 광야의 화가, 신규인이 그린 부흥의 메시지

평신도 미술선교사 신규인의 작품에 대해서 네 번째 연구의 글을 쓰게 되는데, 이처럼 신규인의 그림을 자주 다루는 것은 작가가 연구자의 가까이에 있고 그의 작품을 쉽게 접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미술에 대한 소명’, ‘찬송화가’, ‘시각적 부흥 사경회’, ... 언뜻 보면 그 의미를 알아채기 어려운 독특한 이력과 직함과 미술사역이 그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이유이다. (신규인, 2006, pp.33-64)

신규인의 그림에는 말씀과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배어있고 교회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녹아 있다. 그리고 늘 그의 화면에서는 세련미를 찾기 힘든 야성이 묻어나고 있다. 그림에 담지 못한 이야기들을 글과 책으로, 그리고 강의와 집회를 통해 거침없이 토해 내는 작가를 보면서 연구자는 ‘기독교미술계의 세레 요한’을 생각해 본다.

광야의 화가 신규인이 2007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상보다 빠른 개인전의 소식을 전해 왔다. 새해 벽두, 정월의 첫 주부터 대구 서현교회의 문화공간 갤러리GNI에서 열세 번째 개인전을 가진다. 전시회 리플렛의 표지작품 <사경회>는 특별히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 오는데, 이 그림은 조국교회 부흥의 기점이 된 역사적 사경회의 현장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다. 추위 속에서 눈 덮인 먼 길을 걸어온 한 여인이 장대현 교회 정문에 서있다. 머리에 큰 보따리를 이고 어린 애를 등에 업은 시골 아낙네의 모습이다. 이 그림은 1909년, 미국인 선교사 밀러(H. Miller)가 남긴 기록에 근거하고 있다.

열흘간의 성경공부를 위해 한 자매는 쌀자루를 이고 300마일을 걸어 왔고 다른 이들은 거기에다 아이들까지 업고 왔는데 그들은 손때 묻은 성경책을 갖고 있었다.



[그림7] 사경회, 신규인

온 몸으로 체감되는 데 반하여 상부의 벽돌예배당의 붉은 기운과 따뜻한 색채는 사경

기록만으로 실감할 수 없는 당시의 상황을 작가는 생생하게 재현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의 작품들은 사실에 다가서려는 노력을 보여주지만 사실적이라 할 수 없는 거칠고 무딘 조형 특성을 보여준다. 그 것이 오히려 생생한 재현을 가능케하는 방법이며 작품 속의 인물 성격을 살려내는 효과를 주고 있다. 투박하고 강인한 인물의 표현을 위해서 작가가 사용하는 기법인 것이다. 그런 중에도 작품 사경회의 화면에서 상하로 나뉘어진 색채의 대비는 유념해 보아야할 부분이다. 화면 아래의 푸른 기운에서는 엄동 설한의 추운 기운이

회의 열기를 느끼게 해주는 암시적 표현으로 작가의 계획된 의도로 보인다. 특히 여인의 얼굴이 매우 붉게 표현된 것도 충분히 주목해야할 사항이다. 추위에 벌겍게 달아올랐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이해이지만 사경회 집회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기대를, 그리고 부흥에 대한 열망을 지나친 붉은 기운으로 담아 낸 작가의 의도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그림은 그 때로부터 백년이 지난 오늘, 고도성장과 물량주의의 폐해 속에서 부흥의 의미마저 변질된 시대를 향해 참된 부흥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고 있다. 그림 속의 여인은 너무나도 세련되고 화려해져 버린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이러한 물음을 던지고 있는 듯하다. ‘너희들은 내 모습이 부끄럽나?’

그림을 통해서 정작 부끄러운 것은 우리들의 모습임을 깨닫게 된다. ‘Again 1907’을 꿈꾸며 많은 계획과 행사들로 분주한 한국교회에 이 작품은 정작 잃어버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그것은 “말씀으로 돌아오라!”라는 외침으로 사경회가 열리는 100년 전의 한 교회를 배경으로 성경책을 들고 서있는 여인의 남루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듣는 하늘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광야의 화가 신규인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전하는 2007년의 메시지인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작품을 ‘찬송화’로, 작가적 신분을 ‘찬송화가’로 인식하면서 작품 전시회를 ‘시각적 부흥사경회’로 여기며 창작과 발표를 해오던 신규인은 결국 수년간 미술 선교사의 길을 걷게 되었고 현재는 개척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말씀의 사역에 전력하기에 이른다. 이것은 그동안 작가가 지향해 온 말씀의 시각적 체현 작업의 결과로서 조금도 이상하지 않게 보인다. 이미 그의 작업과 발표는 미술인의 한계를 넘어서 전도자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보여주었으며 이제 그에게 허락된 소명의 길에 자연스럽게 들어섰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규인의 이와 같은 사역적 변화는 비교적 최근의 일로서 이 후의 창작 활동이 어떻게 전개 되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대와 함께 지켜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가 크리스천 작가로서 견지해온 작품 이미지와 발표의 활동이 사역적 삶으로의 전환과 매우 어울리는 적합한 것이며, 앞으로 예상되는 바는 다시 창작과 전시의 활동이 재개되어진다 하더라도 그 동안 천착해온 말씀이 체현된 이미지의 세계를 꾸준히 지향해 갈 것이라는 점이다.

## 2) 말씀이 체현된 화면의 신비 - 구숙현의 로고시즘(Logos-ism) 회화-

대구 전시를 통해서 보여준 구숙현의 회화는 말씀이 형상으로 체현된 로고시즘<sup>3)</sup>의 한 전형을 보여준다. 화면 전체가, 출품작 모두가 철저히 말씀으로 옷 입고 있기 때문이다. 화가들이 누리며 펼칠 수 있는 그 많은 자유와 상상의 세계를 접고, 구숙현은 오직 말씀과 복음의 이야기로 화면을 구축해 간다. 이 시대에 그와 같은 작가가 우리의 이웃으로 살며 작업을 한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것으로 무엇이 그런 작업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구숙현이 세상의 이목을 끌만한 주제들을 버리고 오직 복음의 이야기에 집착하게 한 연유가 무엇인지 그의 작업 뒤에 숨어있는 작가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림8]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림9] 오병이어

### ① 작가에게 찾아온 말씀

오랜 프랑스 유학생살을 마치고 돌아와 국내외의 전시를 위해 잠시 서울에 체류하던 중에 일어난 격한 풍랑의 사건 속에서 작가는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 때 그를 찾아온 말씀의 은혜는 작가의 삶 전체를 흔들었고,

3) 로고시즘(Logos-ism)은 로고스(logos)<sup>1)</sup>와 이즘(ism)의 합성어이다. 말씀(Logos)의 체현(體現)이란 관점에서 기독교 미술과 문화를 바라보는 필자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말씀을 형상으로 체현하는 로고시즘은 문자적인 말씀을 시각적으로 전환하는 직설적인 체현에서부터 말씀이 가지는 정신적 의미와 가치를 추상적인 형태와 재료로 담아내는 작업, 그리고 말씀이 요구하는 어떤 행동성을 작업과 전시를 통해 구현하려는 시도 등, 다양한 체현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작가의 그림과 작업까지도 말씀 앞에서는 예외 일 수가 없었으며 결국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주제인 십이지상(十二支像)을<sup>4)</sup> 미련 없이 버리게 되었다. 이미 오랜 세월 작가에게 신앙의 고백이 있었지만 작업의 주제는 신앙과 유리되어 대립하고 있던 이원적인 삶과 작업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말씀의 빛이 찾아 올 때, 어둠 속에 있던 모든 미신과 무지의 실상이 드러나고 힘을 잃게 되는 것이 당연하기에 그 동안 구숙현의 화면에 자리했던 열두 동물의 형상은 그 자리를 잃게 되었고, 그 때 이 후로 화면은 복음의 이야기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열 번째 개인전으로 열리는 구숙현 성화전(2007. 5. 3 - 6. 8일, 갤러리 GNI)에서 우리는 오늘까지 지속된 말씀의 체현이 얼마나 풍성하고 강력한 것인지를 확인한다. 어린양의 보혈, 돌아온 탕자, 오병이어, 슬기로운 다섯 처녀, 겹세마네의 기도, 소경 바디매오, 포도나무 비유, 베테스다 못가의 기적 등, 그의 모든 작품에서 형상과 이미지로 체현된 말씀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구숙현, 2007, pp. 2-3).

## ② 말씀이 형상을 입을 때

말씀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으며, 그 이야기는 말씀으로 기록되었다. 작가들은 기록된 말씀의 이야기에 다시 형상의 옷을 입히게 되는 데,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발생한다. 작가에 의해 표현된 형상의 이미지가 과연 말씀의 실체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은 교회의 오랜 역사 속에 끊임없이 제기 되었으며, 그리고 오늘의 크리스천 작가들에게도 계속 논의의 쟁점이 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시각적인 형상을 통해 로고스가 가진 소통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가 하면 로고스를 형상화 하는 것은 로고스의 실체를 왜곡하고 변형하는 위험한 일로 여기는 이들도 있다(오의석, 2012, p.78).

말씀을 형상화하는 작업의 초기에 화가 구숙현에게도 이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다. 작업의 내용과 작가적 삶의 불일치, 예수의 형상을 다루는 것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구숙현은 형상의 작업에만 안주할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의 형상을 사로잡은 말씀에 보다 깊이 다가서기 위해 신학의 수업을 받게 되었고, 그 후로 작가의 작업에는 보다 많은 자유가 찾아 왔으며, 마침내 말씀을 형상화하는

4) 십이지상은 육십갑자의 아래 단위를 이루는 12개의 요소로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등의 동물로 표현된다. 이들은 12방위에 맞추어 몸은 사람으로, 얼굴은 각각의 동물 모양으로 그려지는데 이는 일찍이 도교의 방위신앙에서 강한 영향을 받은 것이다.

미술의 사역적 소명을 작가 자신의 것으로 고백하기에 이른다.



[그림 10] 천지창조(중앙) 전시장면

### ③ 구숙현의 로고시즘, 그 신비와 황홀

구숙현의 그림은 신비로움이 있고, 그의 그림이 함께 전시된 공간 안에는 어떤 황홀함이 있다. 부식된 동판의 저부조를 연상케 하는 회화작품들은 오랜 역사를 견뎌온 보물과 같아 보이는데, 말씀이 그 만큼 보배롭고 소중한 것임을 증언하기 위해 작가는 독특한 제작 기법과 특별한 재료들을 사용한다. 유학시절 서구미술의 역사적 유산으로부터 현대의 매체 표현에 이르기까지 성실히 답사하며 습득해 낸 재료기법이 신앙의 열매로 승화되어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구숙현의 회화가 주는 신비감의 뿌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색채에서 찾을 수 있다. 동판을 연상케 하는 갈색조의 모노톤을 사용하면서 부분적으로 동에 피어오른 청녹을 연상케 하는 푸른색을 가미한 화면은 마치 동판 부조 작품을 떠올리게 하며 오랜 역사성을 가진 작품으로 신비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다. 모노톤 회화의 현대적 감각에 재질과 색채가 주는 역사적 정서가 어우러지고 기독교적 주제가 가지는 초월성이 작용함으로써 구숙현의 회화는 신비로운 정서를 불러일으키는데 성공하고 있다.

그렇지만 말씀을 즐겨하지 않는 세상과 미술계 안에서 말씀을 체현하는 회화가 설 수 있는 자리는 결코 넓은 것이 아니며, 로고시즘 회화에 대해서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것도 아니다. 어차피 좁은 길을 가는 구숙현의 그림에 대한 환호와 갈채가 교회의 문화공간과 기독교미술계안에 머물지 않기를 바라게 되는데, 언젠가 그의 작품들을 루브르나 스미소니언과 같은 저명한 미술관에서 만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장차 이 땅의 나라가 아닌 하늘나라 미술관에 소장되어서 그 신비와 황홀의 빛을 영원히 비출 수 있었으면 한다. 이는 대구의 한 교회 갤러리에서 만난 구숙현의 로고시즘 회화에 대해 가져 보는 기대와 소망이랄 수 있다.

그러나 작가 구숙현은 연구자의 기대처럼 작품창작과 전시와 발표로 일관한 작가적 삶에 전력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신학 수업의 결과 목회자로서 미술선교학과에서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역적 삶으로 전환을 맞게 된다. 말씀으로 인한 삶의 전복과 작업의 재기가 분명하고 그 후로 자신의 작품 창작세계를에서 늘 말씀의 시각적 체현으로 일관해온 작가의 모습으로부터 자연스러운 사역적 삶으로의 전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4. 연합과 상승의 공동체적 조형 - 이웅배의 **꼬뮌노떼(Communaute)** 연작 -

조각가는 자신의 키를 넘는 작품을 세울 때나 자신의 품보다 넓게 작품을 벌여 놓을 때 특별한 흥분을 맛본다. 이것은 오랫동안 조각의 설치와 전시의 현장에서 조각가의 표정을 살펴보면서 발견한 사실이다. 조각을 지탱하는 두 개의 축이 있다면 그것은 공간점유와 상승에의 욕망이 아닌가 한다. 이 두 가지 욕망은 조각가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인생들이 자신의 삶을 몰아붙이는 보편적 근거가 되고 있다. 할 수만 있다면 집과 땅을 넓히고 높이 승진하여 힘을 행사해 보는 것이 세상 사는 재미이자 흔히 말하는 성공의 기준인 것이다. 눈으로 보고 세어서 확인하기 힘든 고결한 목표들은 언제나 중심에서 벗어나 변방으로 밀려있는 것이 세상의 삶이며 세상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오의석, 2012, p.53).

불어로 붙여진 제목 <꼬뮌노떼>, 우리말로 ‘공동체’라는 뜻을 갖는 이웅배의 기둥들은 이 같은 세상의 흐름에 변혁을 시도하는 조형의 한 모델로 우리 앞에 서있다. 그동안 작품의 재료로 꾸준히 철에 집착해 온 이웅배는 1999년 가을에 금산갤러리가 기획하고 (주)아세아밴드에서 후원한 개인전(9월 25일~10월 9일)에 레듀사(reducer)를 용접하여 구축한 기둥의 연작들을 내놓았다. ‘레듀사’는 배관용 파이프를 연결하는 부품의 한 종류로서 넓고 좁은 직경의 차이를 가진 배관을 연결하는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철재부품이다. 그런데 어떻게 레듀사가 이웅배의 작품속에 선택되고 사용되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



[그림11] 이웅배, 공동체, 1998



[그림12] 이웅배, 공동체, 2011

흔히 작품은 작가를 말한다고 한다. 이웅배의 작품을 보면서도 우리는 작품과 함께 그의 삶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연합과 상승으로 그 정신이 요약되는 공동체적 지향을 작가의 삶과 작품에서 동일하게 발견하기 때문이다. 조각가 이웅배를 잘 아는 이들의 일치된 말은 그에게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일에 특별한 은사가 있다는 것이다. 내가 알기에 그는 많은 사람들과 깊은 사귀를 나눈다. 그의 집 대문은 항상 열려있고 식탁엔 손님이 끊이질 않는다. 주위엔 언제나 사람들이 있고 그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다리를 놓고 일을 만든다. 가진 자와 못가진 자, 남는 자와 부족한자, 때로는 개인과 단체, 교회와 세상을 함께 살피서 연결하는 일에 항상 관심을 가져온 작가였기에 레듀사가 발견, 선택되고 작품으로 변하여 우리 앞에 제시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가 가꾸어 온 삶의 모습처럼 서로를 받쳐주고 세워줌으로써 상승하는 레듀사 기둥들은 홀로 외로이 서있기 보다는 몇 개의 무더기로 군집을 이룬다. 위로만 치솟아 오르는 상승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균형과 조화를 위해 절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작품 속에는 생명의 잔잔한 파동이 있고 철재부품의 표면에서도 따스한 온기를 느낄 수 있다. 유기적인 곡선과 덩어리의 불규칙한 팽창과 이완. 교차와 반복은 생명을 잉태한 여체의 볼륨과 만곡을 연상케 하고 인물 상호간의 교통을 위한 회화적인 몸동작을 떠오르게 한다. 작가가 첫 개인전에서 내보인 작품인 <나무>와 중첩시켜 보면 열려진 하늘에서 흘러내리는 은혜의 수액들이 나무의 마디마디에 맺혀있는 느낌을 받는다. 이웅배의 <꼬뫼노떼>는 이 땅의 필요를 주목한 작가의 반응으로 보인다.

연합을 모른 채 위로만 상승을 추구하는 데서 빚어진 고립과 독단의 폐해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서로의 연합만을 강조하면서 무력함과 혼미함에 빠질 수 있는 우리들에게 이웅배의 작품과 전시는 신선한 도전과 자극으로 다가온다. 레듀사를 집적한 이웅배의 <꼬뮈노떼>연작은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야할 공동의 과제를 상기시킨다. 우리는 그의 작품에서 연합과 상승의 공동체에 관한 조형적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그림13] Community, 이웅배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2012

조각가 이웅배의 이와 같은 조형적 진술은 시각적 표현 안에 머물기를 거부하며, 작품이 보여주는 공동체성을 작가들의 공동체적 삶을 통해 실천함으로 나타나게 된다. 청년기에 기독교미술연구회의 창립 활동과 기독교미술세미나의 개최 등, 연구와 발표 중심의 활동은 중년에 이르러 공동의 창작과 교육을 담당하는 미술사역 공동체 활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활동은 아직 안정되

지 않은 청년 작가들에게 나눔과 지원의 도움, 협력을 통한 상생의 길을 보여주는 사역적 삶의 하나로 보여진다.

### 5. 말씀에 눈 뜬 조각가의 미션 퍼스펙티브(Mission Perspective)

“눈뜨기 전은 부끄럽고, 자신 없었지만, 눈뜬 후로는 솔직하고 당당하게 보여지면 아주 기쁠 것입니다.” 김수정의 눈뜨기 展 (2002.12.12~18, 갤러리 환)에 기록된 작가의 말이다. 전시장 중앙엔 한 그루 나무가 서 있었다. 입구에는 작품 <구원>이 설치되었고, 한편 벽에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이 털실로 형상화되었으며, 또 한편에선 고치에서 나온 나비들이 줄지어 벽면을 날고 있었다. 김수정의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필수과정으로서 흔히 졸업작품전이라고 불리는 전시회의 부제는 “눈뜨기 전”이었다. 작가는 분명히 자신이 눈뜬 세계와 자신의 눈뜬 모습을 보여 주고 싶어 했다. 여기에 더하여 작가는 눈을 뜨겠다는 의미를 덧붙인다. 처음 갖는 설치 개인전으로서 자신을 처음 세상에 내보이는 일이 또한 눈뜨기의 한 과정일 수 있다는 이야기

다. 그렇다면 작가의 눈뜨기는 과거의 일이자 현재 진행이며 또한 미래의 일인 것이다.

그래도 연구자는 작가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눈뜨기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지, 그리고 주위에는 눈을 뜨지 못한 작가들과 그들의 작업을 바라보는 마음은 어떤 것인지 물었을 때, 작가는 1994년의 어느 한 날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작가가 더욱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그 날 이후의 습관적 불안정과 방향의 여정들이었다. 아직은 어린 청년작가인데 어떻게 전시장으로 말씀을 체현하여 들고 나오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연구자는 그것을 용기라고 부르고 싶지만 작가는 자신의 작업을 자연스런 일상으로 소개한다. 그만큼 그는 말씀에 붙들려 있다는 것인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또한 궁금하다. 작가에게 시련이 있었고 그 시련을 통해서 두려움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 시련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자 했을 때 그것은 놀랍게도 삼 년 반 동안 끄적여 아끼며 키워오던 한 마리 개의 죽음이라는 대답이었다. 마침 그 개의 죽음은 작품으로 그 개의 이미지를 확대해서 출판한 얼마 후였기 때문에 그 때로부터 마음이 가고 좋아하는 어떤 형상의 제작을 그분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작가의 설명이다. 이 체험을 통해서 또 빼앗아 가실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때문에 마음가는 대로 작업할 수 없음을 배웠고 이제는 말씀을 작품으로 담아 내는 것만으로도 할 일이 무궁함을 알게 되었으니 그가 말하는 시련, 곧 마음 속의 이상과도 같았던 개와의 결별은 그의 작업을 다시 말씀 안에서 세워 가는 전기였던 것이다.

### 1) 오홀리압 기법

털실은 포근하고 따뜻한 속성을 가진다. 작가 개인에게는 불완전한 자신을 감싸는 보호와 치유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작가의 정서에 부합하며 다루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김수정은 털실을 이용한 자신의 작업을 오홀리압 기법이라 명명하며, 이 기법이 조각계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서 이 기법에 대한 작가만의 오리지널리티와 아이덴티티를 고집한다. 오홀리압은 브살렐을 도와서 성막을 설계하고 건축하는 사역을 도왔던 사람으로 그의 작업 가운데는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공교히 짠 의복이 포함되어 있다(출31). 김수정은 뜨개질 솜씨가 좋았던 어머니와 성경 속의 인물 오홀리압이 자신의 작업을 있게 한 기초라고 말한다. 자신이 오홀리압의 후예라는 생각을

하며 작업의 실마리를 조각 역사의 거장과 현대의 유행에서 찾지 아니하고 성경과 가정의 어른들로부터 발견한 그의 착안은 매우 특별하다.

## 2) 큰 명제, 좁은 길



[그림14] 김수정의 색실 작업



[그림15] 선택, 김수정  
260×170cm, 혼합재료, 2001

김수정의 작품 명제는 크다. 그리고 믿음의 핵심에 관한 것들이다. 이렇게 비중 있는 명제들을 형상화한다는 것은 작가에게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말씀은 그 어떤 형상 안에서 제한될 수 없고 갇힐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김수정의 작품 해석은 전혀 무겁지 않다. 그의 말에 의하면 작품 <영생>에 나타난 무수한 털실공은 사람의 영혼을 나타내는 눈동자, 혹은 거짓일 수 없는 순수한 가슴의 표현이다. 거기에 수놓아진 둥근 무늬들은 지식의 나무 표면에 있는 무늬가 입체화 된 것으로 전시된 작품들은 이처럼 서로 상관성을 갖는다. 그리고 작가가 큰 명제들을 소화해 내는 통로 또한 복잡하지 않다. 작가의 상상력이 촉발되는 재료와 형상의 접점은 매우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일면이 있다. 그로 인해서 내용의 전달과 소통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도 예상된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자기 고백적 차원에 머문다 해도 믿음의 작업으로서 가지는 그 의미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말씀, 구원, 영생과 같은 거대한 명제에 도전할 수 있는 이가 세상에 많지 않기 때문이다(김수정 p.2).

덜 부끄러운 전시를 하는 것이 소박한 바람이었다고 말하는 작가는 전시란 언제나 부끄러운 것임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가 즐겨 사용한 설치작업은 준비를 하면서도 그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운 면이 많다. 그렇지만 이번 전시작품의 설치를 끝내고 현장에 섰을 때 자신의 능력 이상의 것임을 확인했으며 그것이 은혜였다고 작가는 회상한다.

그러나 생각과 같이 사람들이 전시장을 많이 찾지 않는다는 사실에 적잖은 실망도 있었다고 하니 첫 개인전을 통해서 예술의 소외와 작가의 고독을 깨우칠 수 있음도 작가에게는 눈을 떠가는 한 과정일 것이다. “작가의 눈은 정신의 거울”이라고 말하는 그에게 앞으로의 방향을 물었을 때 세 마디로 답을 듣는다. “유명해지지 말자”, “좋아서 하자”, “말씀의 표현을 계속하자”. 작가의 대답에서 좁은 길로 들어선 한 작가의 위치를 확인한다. 시대를 역행하며 살아가려는 믿음의 작가가 가진 비전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도 또 하나의 눈뜸이 될 수 있다.

첫 개인전을 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조각가 김수정은 말씀 안에서 새로운 눈뜸을 경험한다. 그것은 성경에서 발견한 미션 퍼스펙티브(Mission Perspective)였고 작가는 결국 가족과 함께 해외선교지의 한 유치원에서 미술교육을 통한 선교사역을 담당하게 된다. 작가로서 그리고 사역자로서의 변화는 바로 말씀에 대한 새로운 눈뜸과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한 청년조각가의 작품과 사역적 삶은 증언하고 있다.

### III. 요약 및 결어

이상에서 살펴본 여섯 작가에 대한 사례 연구에서 우리는 그들이 선택한 다양한 사역의 지평을 확인할 수 있다. 조각가에서 목회자로 삶의 전환을 이룬 작가가 있는가 하면 화가에서 크리스천 상담가로, 그리고 미술선교사로 사역을 담당하는 작가가 있고 또 공동체를 지향하며 작품과 사역을 감당하는 조각가의 모습을 발견한다. 한 청년 조각가는 결국 해외선교지에서 어린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는 선교사로 헌신적 삶을 살아가기에 이른다. 이 작가들의 삶에서 공통적인 특성은 작가들을 찾아온 말씀에 의해 그들의 삶에 극적인 변화가 있었으며, 그 후의 작업에서 그 말씀의 세계를 형상으로 담아 옮기려는 노력과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적 회심이 작가의 창작 세계에 변화를 일으키는 미학적 회심으로 이어지고, 거기에서 일부 작가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역적 회심으로 이어지는 결과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작가들이 작품을 통해 보여준 이미지는 예외없이 장차 변화되어질 삶의 모습을 예견하게 해 주고 있음 확인한다. 한 사랑의 연작을 보여준 조각가 조동제는 ‘한 사랑’이라는 커다란 주제 안에서 복음과 십자가 사건을 시각이미지로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는데 이는 장차 복음전도자와 목회자로서의 삶과 열정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조동제 작가의 작품은 전통 가옥의 목재를 활용한 한국적 재료에 현대적인 플라쥬 접합의 기법으로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인 십자가 복음의 사건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성과 전통성, 현대성, 기독교 정신을 통합하는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의 진수를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작품에 녹아있는 말씀과 복음에 대한 열정은 작가를 더 이상 형상을 다루는 작가로 머물게 하지 않고 사역적 삶으로 인도하게 되어 조각가에서 인간의 삶과 영혼을 다루는 사랑과 복원의 종합예술가로 변화를 맞고 있는 것이다.

마음을 그리는 화가 황지연은 결국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상담자의 삶으로 변화를 보여준다. 이미지는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고 나타내는데 있어서 언어보다도 자유스러운 매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지를 통해서 마음에 일어나는 심리적인 변화와 치유적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지는 언어적인 말씀만큼 사람을 설득하고 의지적인 결단을 일으켜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상호 소통에 한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황지연의 그림이 가지는 치유적인 힘에 높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작가의 치유적 관심과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작가의 장래의 삶을 예견케 해주는 것으로 가치를 가진다. 작가는 누구보다도 이러한 사실을 절감했으리라 생각되며 그는 결국 심리학과 상담학을 전공하고 크리스천 상담자의 길에 들어서서 오랜 시간 심층심리적 치료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성경의 말씀과 교회의 역사와 성도들의 삶을 주된 주제로 다루던 화가 신규인은 한 단체로부터 미술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미술사역과 강의, 저술활동을 병행하다가 결국은 목회의 사역을 준비하여 시작한다. 또한 십장생 등 한국의 전통적인 주제를 버리고 오직 말씀이 체현된 화면으로 로고시즘 미술의 전형을 보여주는 화가 구숙현 역시 신학의 수업을 마친 후 미술선교사로 사역적 삶에 헌신하게 된다.

연합과 상승의 공동체적 조형을 <꼬미노떼> 연작 속에서 꾸준히 추구하고 있는 조각가 이용배는 단순한 창작과 전시를 함께 수행하는 단체와 그룹의 성격을 넘어서서 공동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작업 공동체 사역을 통해 청년 작가들을 품고 교육과 창

작을 병행하는 사역적 삶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말씀에 눈을 뜨므로 인해 작업과 창작의 전기를 맞이한 청년 조각가 김수정은 결국 말씀 안에 있는 미션 퍼스펙티브(Mission Perspective)에 눈을 뜨게 되면서 수년 전 열방의 품고 해외의 한 선교지로 가족과 함께 나아가서 아동미술 교육을 통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미술선교사의 삶을 시작한다.

이상의 작가들은 모두 예외없이 형상과 이미지의 세계 안에 자족하며 머물기 보다는 말씀의 명령과 도전에 반응하며, 창작과 전시의 행위가 가지는 한계에 대해 인식하면서 직접적인 사역적 삶으로의 전환하거나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동일한 신앙의 고백 안에서도 다양한 사역적 삶의 가능성을 열어 감으로서 그 지평을 넓히고 있으며 작가들의 앞선 작품은 사역의 방향성을 넉넉히 예견케 할 만큼 이미지와 사역적 삶의 방향은 깊은 상관성을 보여준다.

작가들의 사례 연구를 통해서 미술사역의 가능성과 필요성, 그 한계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미술선교, 미술치유, 미술공동체 사역에 대한 논의와 강조가 한국 기독교 미술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논문에서 다루는 작가들은 그 한계에 대한 개인적인 자각을 통해서 삶의 전환을 모색한 사례를 보여 주며 그 사역의 지평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같이 헌신된 작가들의 사역적 삶으로의 전환은 미술계와 기독교미술계에 커다란 손실로 여겨지는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전체를 생각하면 결코 손실이 아니며 오히려 전문성을 가진 사역자의 출현으로서 강화와 보완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기독교미술인으로서의 소명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 사이에서 크리스천 작가들이 가지는 다양한 활동과 사역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작품 창작과 삶의 일치를 위해 힘쓰는 많은 크리스천 작가들의 연구와 노력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리라 본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작가들의 사례는 작품의 창작과 사역적 삶이 가지는 무게와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작가들로 하여금 형상 작업의 영향력에 대한 강조와 함께 그 한계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균형적인 시각을 회복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작품 속의 사례 작가들의 삶과 작업이 형상세계 안에서 자족하며 안주하기 보다는 제자로서의 사역적 부르심에 대하여 열린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독교미술 작가들을 자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Apostolos-Capadona, Diane (1992). *Art, Creativity, and Sacred*. New York: Crossroad.
- Ferguson, George (1954). *Signs & Symbols in Christian Ar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ookmaaker, H. R. (1978). *Art Needs No Justification*, 김현수 역 (2002). 『예술과 그리스도인』. 서울: IVP.
- \_\_\_\_\_ (1970). *Modern Art and the Death of a Culture*. 김유리 역 (1993). 『현대 예술과 문화의 죽음』. 서울: IVP.
- Schaeffer, Francis A. (1973). *Art and Bible*. 김진선 역 (2002). 『예술과 성경』. 서울: IVP.
- Seerveld, Calvin (1980). *Rainbows for the Fallen World*. Toronto: Tuppence Prees.
- Veith jr. Gene Edward (1991). *State of the Arts*, 오현미 역 (1994). 『그리스도인에게 예술의 역할은 무엇인가』. 서울: 나침판.
- Wolterstorff, Nicolas (1987). *Art in Action*. Grand Rapids: Edermans.
- 구숙현 (2007). 『구속현성화전』. 도록. 대구: 갤러리GNI.
-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1997). 『VIEW미술전』. 대구: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 김병종 외 (1996). 『기독교와 미술』.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김수정 (2002). 『눈뜨기 전』. 대구: 갤러리 환.
- 신규인 (2001). 『신앙과 미술』. 대구: 도서출판 셋.
- 신규인 (2005). 『농부이신 하나님』. 대구: 도서출판 셋.
- 오의석 (2006). 『예수 안에서 본 미술』. 서울: 흥성사.
- \_\_\_\_\_ (2012). 『로고스와 이미지-그 접점에 서다』. 서울: 예서원.
- 조동제 (1991). 『조동제 조각전』. 서울: 제3갤러리.
- 황지연 (2005). 『구름 속을 거닐다』. 서울: 빛 갤러리
- 오의석 (1993). “현대 기독교 미술과 세계관.” 통합연구 통권 18호. 대구: CUP.
- \_\_\_\_\_ (1992). “성경적 조형관.” 통합연구 통권 14호. 대구: 통합연구학회.
- \_\_\_\_\_ (2010). “한국 현대 로고시즘(Logos-ism) 미술에 관한 연구.” 신앙과 학문 15권 3호. 서울: 기독교세계관학술교육동역회.
- \_\_\_\_\_ (2007). “말씀이 체현된 화면의 신비-구속현의 로고시즘 회화.” NEW LOOKS. 7-8. 대구: 기독교문화선교회.
- \_\_\_\_\_ (1998). “연합과 상승의 공동체적 조형-이용배의 꼬뮈노페 연작.” 문화마당/미술 11. 서울: 주간기독교.
- 황지연 (1998). “나의 세계관 뒤집기.” 2월호. 서울: 복음과 상황.

## ABSTRACT

### A Research on Images of Christian Artist's Works and the Horizon of Their Ministering Lives

Eui-Seok Oh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This research is about images from art pieces of Christian artists and the horizons of their ministering lives. Through the art works and lives of six artists who not only focus on their jobs of creating art pieces and exhibiting them, but who chose to live ministering lives themselves, at the same time revealing their distinct identity and creative works as Christian artists, various creative works and the horizons of ministry can be found. One has changed his career as a sculptor to a minister, another has lived his life committed to his ministry as an artist missionary, the other has done his works and ministry while pursuing to form a community. One young sculptor has ended up teaching art to children in a foreign country to live a devoted life as a missionary.

What is so similar about these artist is that there have been some drastic transformations in their lives by the Word as it approached them, and ever since then, they have put their efforts in trying to embody the universe of the Word into the images. These cases, however, have shown that these artist have rather chosen to focus on or completely changed their careers into living their ministering lives as they realize that the universe of the Word is too great to be remained in the realm of images, and recognize the limitations on creation and exhibition works. Although these shifts of devoted artists into ministering lives can be seen as critical damages to art world or Christian art world in some aspects, they are never any harms for the sake of the Kingdom of God and the church as a whole, but rather consolidation through the advent of ministers with specialties.

Through the research on cases of these artists, it was possible to

review the possibilities, needs, and limitations of art ministry.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ministries through producing mission-themed works, mobilizing art therapy or forming art communities are actively emphasized and discussed within the Korean Christian artist world, the artists studied in this research serve as the cases of shifting their ways as they confronted limitations of art works and eventually expanding the horizons of the art ministry.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widen the understanding on various activities and ministries of Christian artists who follow their callings as the Christian artists and disciples of Christ, and on the research and the effort of many Christian artists who are striving to integrate their work creation to their faith.

Key Words: the Word, Christian, artist, image, ministering life